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5.3.11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(044-203-5620), 정의라 사무관(5625)
활용촉진과 손경윤 과장(044-203-4150), 김현정 사무관(4158)

한중 FTA 활용, '차이나 데스크'가 도와드립니다.

- 「차이나데스크 개소식」 및 「2015 통상산업포럼 한-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」 개최-

□ 우리 **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한-중FTA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** 하는 차이나 데스크가 문을 열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윤상직)는 '15. 3. 11. 무역협회에서 **「차이나데스크 개소식」과 「2015 통상산업포럼 한-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」을** 열었다.

< 개 요 >

일시 / 장소	'15.3.11일(수) 08:30~17:30 / 무역협회 3층·코엑스3층 E홀
주최 / 주관	산업통상자원부 / 무역협회 및 코트라
참석자	산업부 장관, 특허청장, 중기청장, 관세청장, 무역협회 회장, 코트라 사장, aT센터 사장, 통상산업포럼 분과위원, 중국진출 유망 중소기업 등 400여명
프로그램	차이나데스크 개소식(무역협회 3층)
	2015 통상산업포럼 한-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(코엑스 3층)

□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이후 원스톱 지원창구인 차이나 데스크 설치를 언급*했고, 11일 **무역센터 3층**에서 업무를 시작했다.

* 한 중FTA 활용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('14. 12. 5 무역의 날, 대통령축사)
* 한중 FTA 가서명시 "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강화방향" 발표 ('15.2.25)

○ **차이나데스크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한·중 FTA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활용 의지를 담은 것이다.**

○ 또한 차이나데스크가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발족한 것은 우리 **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FTA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**하기 위한 것이다.

-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, 여타 FTA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상품을 수출하거나 직접 진출해 있는 등 직·간접적으로 중국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. 따라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통해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□ 중소기업의 한-중 FTA 활용을 위한 첨병으로서 **차이나 데스크의 기능과 조직구성**은 다음과 같다.

○ **(주요기능)** 한중 FTA 발효 이전에는 중국측 품목별 양허내용, FTA 활용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·자료 제공 및 컨설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.

- 발효 이후에는 FTA 활용은 물론, 수출산업화 지원, 판로개척,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에 이르기까지 중국진출 관련 모든 현장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<단계별 기능 및 조직구성 계획>

구 분	내 용
1단계 (발효 전)	○중국측 품목별 양허내용, FTA 활용방법 등 **포괄적인 정보·자료** 제공 및 **비즈니스 컨설팅** 등에 중점 * (구성) 1팀 9명 / 관세사, 변호사, 원산지관리사, 코트라 등 5개 기관 파견전문가, 퇴직무역전문인력 등 활용
2단계 (발효 후)	○한중 FTA 활용, 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, 비관세장벽 애로해소, 사후검증대비 등 분야까지 **원스톱 지원** * (구성) 2팀 15명 / 전문 인력외 기표원, 식약처, 특허청 등 유관부처 전문가 파견 보강